

가을이
찾아왔나
봄니다

세상은 보면 볼수록,
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놀랍습니다.
그렇게 푹푹 찌던 무더운 계절이 어느덧 조용히 물러나고
바야흐로 단풍 곱게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.

이 가을,
알록달록 오색으로 곱게 물든 가슴에
두근두근 벅찬 설렘이 가득한 이유는
어쩐지,
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것만 같아서입니다.
그리워하던 이들을 만날 것 같아서입니다.

바야흐로, 사람이 그리운 계절입니다.
오늘은, 예쁜 종이에 정성 가득 담은 편지를 쓰기에 좋은 날입니다.
그리운 마음 가득 담아,
반가운 이들에게 행복을 전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.

이제는 정말, 가을이 찾아왔나 봅니다.

